

# 당뇨인에게 당뇨병주간의 의미는



문 계원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 회장

**당**뇨병에 대한 계몽·예방과 치료의 전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 7회 당뇨병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당뇨병환자들은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당뇨병환자 수에 대한 정확한 역학적 통계가 나온 것은 없지만 대략 2백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생활 문화를 갖고 있는 일본에서 1997년말 조사 결과 당뇨병이라고 의심이 가는 사람까지 합쳐 1천3백70만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1997년 3월말의 일본 인구가 1억2천5백26만명이니 당뇨병의 유병률은 11%나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식 주의의 일본 식단에 비해 포식성에 가까운 우리의 식생활 양식이 당뇨병 발생률을 더 높이고 있으리라 생각할 때 우리나라 당뇨인

의 숫자는 200만의 배도 넘으리라 추정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1993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팀이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30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당뇨병 유병률이 12.8%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토록 많은 수로 추정되는 당뇨병환자가 도시, 농·어촌 할 것 없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 듯 합니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이 많은 당뇨병환자들 중 얼마 만큼의 환자가 올바른 치료와 관리를 하고 있는나라는 것입니다. 당뇨병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충분히 갖고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을 찾아 검진을 받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바르고 철저한 당뇨병 관리를 하고 있는 당뇨병환자의 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당뇨병과 싸울 때 최강의 무기는 지식이다」 이 말은 미국당뇨병협회에서 1997년에 발간한 '당뇨병의 완벽 가이드'의 서문에 기술된 것으로 압니다. 평생 불치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모든 당뇨인들에게 치료와 관리에 대한 지식을 심어 주는 것은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당뇨병주간이 갖는 의의는 중대하며 우선적으로 당뇨병에 대한 지식의 홍보·교육이 전국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의 당뇨병주간에는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전국에 걸쳐 공개 강좌 등 다양한 행사가 있어서 우리나라 당뇨병주간이 기틀이 잡혀가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정부 보건 관련 부서의 후원으로 보건 진료 기구의 말단 기관까지 참여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당뇨병의 홍보·계몽이 전개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언론매체에서도 당뇨병주간 동안 당뇨병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루어 준다면 더욱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DAK**